

# 유자해충의 종류와 주요 병해충의 피해진단표

최덕수, 김은식, 이아성, 최진경, 김규진<sup>1</sup>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난지과수시험장, <sup>1</sup>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우리나라 남서 해안지대에서 재배하고 있는 상록성 과수인 유자를 가해하는 해충의 종류를 조사하고 주요 병해충에 대한 피해진단표를 작성하고자 유자 주산지인 전남 고흥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 조사하였다.

유자를 가해하는 해충의 종류, 해충별 피해정도, 가해부위 및 가해시기를 조사한 결과, 유자를 가해하는 해충은 들민달팽이와 응애류를 포함하여 총 8목 33과 68종이 조사되었다. 그 중 피해가 심한 해충은 꿀응애(*Panonychus citri*), 귤녹응애(*Aculops pelekassi*), 귤굴나방(*Phyllocnistis citrella*), 조팝나무진딧물(*Aphis citricola*) 등이었고, 가해부위별로는 꽃을 가해하는 해충은 애초록꽃무지(*Gametis jucunda*) 등 8종, 잎을 가해하는 해충은 꿀응애 등 26종, 가지를 가해하는 해충은 박쥐나방(*Endoclyta excrescens*) 등 17종, 과실을 가해하는 해충은 귤녹응애 등 38종으로 과일을 가해하는 해충이 가장 다양하였다. 최근 4년동안 주요해충별 피해과율을 보면 흡즙충류, 귤녹응애, 총채벌레류가 각각 50.8%, 37.3%, 25%로 흡즙충류의 피해과율이 가장 높았다.

해충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그 피해증상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자 재배자들은 그 피해원인을 쉽게 알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의 원인을 구명할 수 있도록 유자에 발생하는 병해 5종, 해충 21종으로 총 26종에 대한 피해증상의 외형적인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피해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피해진단표를 제작하였다.